10만 연등 수 놓으니…여기가 '부처님 세상'

불기 2567년 연등회

글=신성민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연등회 보존위원회 ·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는 5월 20일 서울 종로 일원에서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이자 국가무형문화재 연등회를 개최했다. 코로나19 종식 선언 후 처음 열린 이번 연등회에는 5만여 대중이 행렬에 참여하고, 10만 연등과 장엄등이 서울 밤하늘을 장엄해 이전 규모로 회복했음을 세계에 내보였다.

오후 7시부터 진행된 연등행렬은 윤재웅 동국대 총장의 행렬 선언으로 시작됐다. 올해 선두 장엄등은 '불교사물등'이었다. 중생제도를 상징하는 '불교사물등'은 법고등, 범종등, 운판등, 목어등으로 구성됐으며,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하는 서원이 담겼다. 또한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와 생태계 파괴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생명을 위해 환경을 고려한 장엄등과 행렬등도 행렬에 참여했다.

사찰과 불교단체들이 새롭게 선보인 장엄등들도 눈길을 끌었다, 한마음선원은 '평등공법등'을 새로 선보였으며, 화계사는 '세계일화등', 진각종이 '황룡등'을, 전국비구니회는 '사캬디카등'을, 태고종이 '거북법고등' '관세음보살등' '달위의 비천등' '연꽃과 아이들등' 등을 새로 제작해 행렬에 참여했다.

올해 연등행렬에는 참가단체 이외에 시민 문화체험단도 행렬에 참여한다. 대한불교청년회를 통해 선착순 250명 사전 신청을 받아 참여한 시민들은 연등행렬에도 동참해 축제를 즐겼다.

▶C13면에 계속



연등회 보존위원회 ·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는 5월 20일 서울 종로 일원에서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이자 국가무형문화재 연등회를 개최했다. 앞서 동국대에서 열린 '어울림마당' 후 연등행렬이 이어졌다. 사진은 한마음선원 장엄등 행렬 모습.











봉축위원장 진우 스님을 비롯한 각 종단 지도자들.





청정 염불수행도량

영산불교 현지사

초대 교조 광명 만덕 큰스님
제2대 교조 자재 만현 큰스님

장로원 의장 성광 교정원장 일도
포교원장 행원 교육원장 대원
감찰원장 범행 불교대학장 일도

춘천본사 주지 대원 제주제2본산 주지 범행
부산분원 주지 보문 대전분원 주지 행원
고성분원 주지 성범 대구분원 주지 정대
김해분원 주지 성광 일본분원 주지 성도

영산불교 현지사 사부대중 일동

•춘천본사 : 강원도 춘천시 사북면 영서로 4892-23 ☎ 033-243-1787
•제 2본산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신북로 311 ☎ 064-783-5355
•부산분원 : 부산광역시 동래구 중앙대로 1325 이센타워 15층, 14층 ☎ 051-554-5150
•대전분원 : 대전광역시 서구 동서대로 1070 ☎ 042-525-5325
•고성분원 :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대진항길 7 ☎ 033-681-5515
•대구분원 : 대구광역시 남구 중앙대로 29길 20 ☎ 053-654-5557
•김해분원 : 경남 김해시 상동면 상동로 739-157 ☎ 055-327-0055
•일본분원 : 일본 야마구찌켄 이와쿠니시 오즈마치 3-3-10 ☎ 81-827-31-1611
•영산불교대학 : 대전광역시 서구 동서대로 1070 ☎ 042-525-5325